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11화)

총살 집행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 불덩어리와 생수체험

2절: 6.25전쟁 중에 있었던 무서운 연단

- 6) 총살당하다
- 7) 토굴생활
 - 가. 목사말 이양숙
 - 나. 한달 간의 토굴생활
- 8) 대동군 치안대장으로 추대되다
- 9) 신양리 형무소에 재수감되다
- 10) 인고의 나날들
- 11) 거제도 포로수용소 생활
- 12) 반공포로를 석방하라
- 13) 석방 후 그리운 고향으로

6) 총살당하다

일곱째 천사는 평양 신양리 형무소에서 한 달 반쯤 지난 어느 날 오후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걸음을 걸을 수 없어 이리 비를 저리 비를 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기어서 나오기도 하였습니니다. 서산으로 지는 햇빛이 내리쬐는 바깥으로 나왔지만 모두들 마치 암흑 속의 동굴에서 오래 갇혀 있다가 나온 것처럼 잠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인민군들은 죄수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한 30분쯤 운동을 시킨 다음 트럭에 태웠습니다. ‘해가 넘어가는 오후에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모두들 불안한 심정으로 차에다 몸을 실었으나 차는 곧 출발하였습니다.

트럭에서 내려 보니 도착한 곳은 평양 서포 뒷동산이었습니다. 그곳은 서울의 망우리 공동묘지 같은 평양시 근교의 공동묘지인데, 동산 7부 능선쪽에 큰 구멍이가 파여 있었습니다. 인민군들은 죄수들을 총살시키 후 거기다 묻으려는 작정이었습니다. 500여 명이 모두 총살시키는데 한 번에 열 명씩 총살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총살을 당하는 차례에는 여섯 명이 서게 되었는데 그 속에 일곱째 천사도 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는 오백 명이 죽는 광경을 끝까지 다 볼 수 있었는데, 총탄을 맞고 죽

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앞으로 쓰러지는데 반해, 총탄을 맞고 죽는 여자들은 뒤로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발의 총탄이 죄수복 카라에 스쳐 지나감으로써 기적 같은 생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일곱째 천사의 총살집행이 다가왔습니다. 큰 구덩이에는 시체가 차곡차곡 쌓여서 지면 가까이 올라와 있었고 총잡이는 불과 30m 전방에서 총구를 겨냥하며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니다. 다만 “하나님, 이 영혼을 맡아 주옵소서.”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증거하다 죽는 것이 순교인 줄 알았을 때였습니다. 불현듯 부모님과 가족들 얼굴이 환동사진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순간 ‘탕! 탕!’ 하고 두 발의 총탄이 불을 뿜자 일곱째 천사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인민군들은 마지막 시체 6구를 시체구덩이에 던졌습니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나무 가지를 꺾어 엮고 삼으로 모래흙을 퍼서 대충 덮고는 떠났습니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일곱째 천사가 정신이 들기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조금 전에 총살을 당한 것까지 기억이 났습니니다. ‘여기가 천당인가 지옥인가?’ 하고 알 수가 없어 허벅지살을 꼬집어보니 아프기에, ‘내가 다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일곱째 천사의 몸 위에 시체 두 구가 내리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나무 가지가 얹혀 있었으며 흙이 1~5cm정도 덮였는데, 죄수복의 크고 넓은 카라가 얼굴 일부와 코를 덮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질식사할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곱째 천사가 질식사하지 않게 죄수복 카라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체더미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에 귀를 기울여 보니 아직 죽지 않

은 자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그 엄청난 500여 구의 시체 때문에 살릴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곧 신음소리로 그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필사적인 힘을 다하여 시체 두 구를 헤치고 일어나서 상처가 있는지 온 몸을 점검하여 보니 다행히 상처는 한 군데도 없고 죄수복 카라에 총탄이 지나간 흔적으로 구멍 두 개가 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500여 명을 총을 쏘아 죽였으니 마지막에는 총열이 별것계 달아 총구의



트럭에 실려 서포 뒷동산으로... 그곳에서 총살 집행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끝이 약간 넓어져 총알이 빗나갈 수 있었으리라’ 하고 생각도 해 보았으나 불과 30m 전방에서 쏘았는데 명중이 되지 않은 것은 기적이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살려주려나까 제일 마지막에 총살을 당하게 되었으리라’ 하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여 일곱째 천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 이곳에서 저 혼자 살아남은 것은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경 가운데서 보호하신 하나님 나의 길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7) 토굴생활 가. 목사말 이양숙

총살 집행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곱째 천사는 칠후 같은 어둠에 싸여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일단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니다. 그 산 정상은 서포 뒷동산이었는데,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저 멀리 아래에 불빛이 보여 쳐다보니, 그 먼 곳에서 불덩어리가 날아오더니 일곱째 천사의 가슴에 와서 ‘뿡’ 하고 부딪치면서 온 몸은 불덩이가 되었습니다. 그



래서 일곱째 천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불빛 나오는 곳으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기도하니, 다시 번쩍하고 불덩어리가 날아오더니 가슴에 부딪치며 ‘그래, 그래’ 하는 암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두 번째 불을 받았을 때에는, 그의 목에서부터 시원한 생수가 강하게 연결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의말 이양숙을 만나

그리하여 일곱째 천사는 그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뜻으로 알고 그곳을 향해서 들을 지나 산등성의 7부 능선을 따라 약 30리 가까이 걸어가니 여러 채의 집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가는 중에도 간간히 인민군이 지나가므로 인민군 기적이 나면 숲속에 몸을 숨겼다가 지나가면 또 가고 하여 불빛이 나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불빛은 어떤 외딴 집 부엌에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것이었으며 전깃불이 아닌 호롱불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그 부엌 안을 슬며시 들여다보니, 한 처녀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엌문을 열고 그 처녀에게 말한 첫마디가 “선생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애절하게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누가 들어도 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곳은 인민군의 점령 하에 있는 지역이니 인민군에 관련된 주민이라면 영락없이 불뿔러 죽을 운명인데도, 어련에같이 순진하게 “나는 서울에서 온 대학생인데 인민군에게 불뿔러 감옥살이를 하다가 500명을 죽이는 서포 뒷동산의 총살 집행장에서 인민군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 주셔서 살아났습니니다. 선생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평생을 두고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신분을 밝히고 그간의 일들을 읊면서 말했습니다.

이 처녀는 뜻밖의 일이라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웃고 얼굴은 다른 시체에서 흘러내린 핏물로 얼룩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옥중생활로 모발이 많이 길어 있었기에 누구든지 처음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처녀는 인민군과 관련이 없는 교회목사의 막내 따님으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조금 전에 산에서 총소리가 오랫동안 나서, 처녀는 ‘혹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닐까?’ 하고 짐작했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워보라는 이양숙

이 처녀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일곱째 천사의 말을 듣고, “그럼, 교

회 나가세요?” 하는데, 처녀에게서 교인 같은 냄새가 풍겨서 “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냉정한 말씨로 “그럼, 주기도문을 외워보시지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눈을 감고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나니까, 그제야 처녀는 “아! 우리 동지시로군요.” 하고 안심하더니 먹을 것을 갖다드릴 테니 마루에 앉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더니 반으로 쪼갠 삶은 고구마를 두 쪽을 가져다주면서, “우리는 쌀이 없어서 저녁밥이 고구마뿐입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이양숙이었고, 평양 사범전문학교 출신으로 일곱째 천사보다 한 살 더 많았습니다. 처녀가 하는 말이,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큰 오빠는 의사인데 지하에서 반공운동을 하고 있으며 둘째 오빠는 김일성 바로 밑에서 일하는 노동당 중앙위원이고 셋째 오빠는 반공청년으로 아버지와 큰 오빠를 따라서 산속에 숨어서 한국과 미국 비행기가 공습할 때면 무전을 쳐서 어디에 군수물자가 있고 어디에 무슨 부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처녀의 둘째 오빠는 노동당 중앙위원으로 김일성의 총애를 받는 진자 빨갱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오빠가 조금 있으면 집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그 말을 들으니 식은땀이 흐르며 입 안이 말라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빨갱이들에게 붙잡혀 사형집행을 당하고 왔는데 또 빨갱이에게 잡힌다면 그야말로 끝장이었습니다. 그 처녀가 딱으로 가져 온 삶은 고구마 두 개를 목에 넣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는, “성의를 고맙지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으니 빨리 숨겨주세요.” 하고 애원하였습니다.*

박원수

구세진인救世眞人의 출현공식出現公式 (2)

구세진인(救世眞人)은 삼신(三神)이 일체(一體)가 되어 일인(一人)으로 출현한다

2. 경전 속의 구세진인 출현공식의 놀라운 비밀

① 성경의 공식 : 삼위일체(三位一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와 ‘한 감람나무와 두 가지(속:4:11)’에 그 비밀이 있다. 삼위일체란 용어 속에 세 성인이 나와 한 몸으로 일체가 된다는 공식이 숨겨져 있다. 이러한 내용을 드러내는 성경 구절은 계시록 3장 21절이다. “이기는 자는 내가 이김을 얻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도 아버지 보좌에 같이 앉게 하여 주리라(계시록3:21)” 이 말씀은 하나님 보좌에 두 이긴자가 같이 앉는다는 것인데 어떻게 한 의자에 하나님과 두 이긴자가 함께 앉을 수 있겠는가? 세 분이 한 몸 즉 일체(一體)를 이룬다는 비밀한 뜻을 알아야 한다.

또한 스가라서 4장11절에 언급된 ‘한 감람나무와 두 가지’도 마찬가지이다. 즉 세 분이 한 몸을 이룬다는 은밀한 뜻이다. 단지 이긴자를 감람나무로 표현했을 뿐이다. 감람나무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온 세상의 주 앞에 선 자(속:4:14)를 말하므로 이긴자를 뜻하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 감람나무가 한 감람나무로 일체가 되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불경의 공식 : 0자삼점(伊字三點)

불경도 성경과 마찬가지로 예언서이며 특히 불경 중 열반경은 비밀장(秘密藏)이라고 따로 칭하는 것을 보면 예언서이다. 열반경의 이자삼점(伊字三點)이라는 용어 속에 비밀을 숨겨냈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세분의 부처가 나온 후 한 부처로 일체가 되는 자세한 과정이 비밀리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我今當令一切衆生아금당영일체중생及我子四部之中급아자사부지중悉皆安住祕密藏中실개안주비밀장중我亦復當安住 是中入於涅槃아역복당안주 시중입어열반何等名爲祕密之藏 猶如伊字三點하등명위비밀지장유어이자삼점若莖則不成伊 縱亦不成병직불성이 중역불성如摩訶首羅面上三目 乃得成伊三點어마혜수라면상삼목내득성이삼점若別亦不得成 我亦如是 解脫之法

약역부득성 아역어시 해탈지법如來之身 摩訶般若 三法各異亦非涅槃여래지신 마하반야 삼법각이역비열반我今如是安住三法 아금어시안주삼법爲衆生故名入涅槃위중생고명입열반

해설: 내가 이제 마땅히 모든 중생과 나의 아들 사부대중을 모두 비밀장 가운데 안주케 하리라. 나 또한 마땅히 그 비밀장 가운데 들어가 안주하여 열반에 들어가리라. 무엇을 이룸하여 비밀장이라고 하는가? 비유하면 ‘이자삼점’과 같다. 만약 셋이 함께 있으면 ‘이’ 자를 이루지 못한다. 비록 이루지 못했더라도 마혜수라왕의 얼굴에 눈이 셋이 있는 것처럼(한 분 속에 세 씨가 합쳐져 삼신일체를 이루어야), 이자삼점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만약에 세 분이 각각 세상에 나와서 동시에 같이 역사하게 되면, 부삼신일체(不三神一體)라 이자삼점을 이루지 못한 고로 나 역시 이와 같아서 해탈지법(解脫之法) 또한 열반이 아니며, 여래의 몸 또한 열반이 아니며, 마하반야 또한 열반이 아니다. 세 법이 각각 나누어져 있으므로 열반이 아닌 것이다. 나도 이제 이같은 삼법에 안

주하리라. 다만 중생을 위해 거짓으로 열반에 들었다 말하는 것이다. - 대반열반경2권

이 내용을 간주리면 세 분의 부처가 차례로 나와 한 부처에게로 일체를 이루어야 ‘이’ 자를 이루는 진짜 미륵부처님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이(伊)’ 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중국 하남성 노씨현(盧氏縣)에는 웅이산(熊耳山)이 있다. 이 산에서 물이 흘러 이양강(伊陽江)을 이룬 후에 낙양강(洛陽江)을 거쳐 낙수(洛水)로 흘러든다. 여기서 이양, 낙양, 낙수가 바로 삼점(三點)에 해당된다. 웅이산에서 물이 발원한다는 것은 미륵부처님의 불성을 뜻하며, 이양강은 불성을 이어받은 첫 번째 분을 뜻하고, 낙양강은 두 번째 분, 낙수는 불성을 이어받은 세 번째 분 즉 삼존불 일체의 미륵불을 말한다.

이와 같이 상류, 중류, 하류에서 합쳐져야 완전한 강이 이루어지듯이, 앞선 스승 두 분이 있어야, 그 두 분 스승의 불성을 이어받은 마지막 세 번째 부처님을 중심으로 삼존불 일체 미륵부처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마혜

수라왕의 이마에 눈이 셋이 있는 것같이 세 분의 진인의 법력이 합하여져서 한 분 안에 모여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여래의 비밀장이요, 이자삼점의 원리이다. 범당 외벽에 그려진 세 점(···)이 바로 ‘이자삼점’을 표시한 암호이다. 따라서 두 스승을 거쳐 세 번째로 완성된 분이 구세진인인요, 생미륵불이 되는 것이다.

선가(禪家)에서도 수도승들에게 “行住坐臥夢中一念不失伊字(행주좌와몽중일념불실이자); 행하거나 집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꿈속에서도 오직 한마음으로 이자(伊字)를 잊지 말라”라는 글귀를 써 붙여 놓고 이자(伊字)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이다.

③ 격암유록의 공식 : 삼신일체(三神一體)

격암유록(格菴遺錄)에는 ‘三聖一體一人出(삼성일체일인출)’이라는 구절에 그 비밀이 있다. 즉 세 하나님이 나와 한 하나님으로 일체가 되어 출현한다는 예언이다.

父子神中三人出 부자신중삼인출

박태선 기자